

Thankful Christmas !!

2011 ~ 2012

Blessed New Year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 1:21). 또한 2012년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시는 각 가정마다 더욱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시작한 40일 금식기도를 12월 31일까지 마치게 됩니다. 벌써 주신 은혜가 엄청나고 또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지나옴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힘이 크다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갚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Grace는 Carachipampa Christian School 에서 교사사역을 그만두고 내년부터는 저희 사역 준비에 더욱 집중하려 합니다. 저의 기도기간 중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힘이 합하여져 주께서 큰 은혜 내리실 것을 분명히 봅니다. 가정과 사역 모두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oses(부영)는 9살이고 지금 4학년애 재학중입니다. 1년 월반하였지만 신체적 조건이나 학력면에서 오히려 동료들을 앞선것이 커다란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제는 막내 부희를 업어주기도 하고 세수 시키며 밥까지 먹이는 등, 큰 형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Josue(부선)는 이번 12월 20일에 6살이 되었고 아직 유치원 재학중입니다. 미국에서 안식년 4개월 머물때 집에서 엄마가 가르쳐서 숫자 1천까지 쓰고 읽으며 알파벳도 완전히 소화하여 글을 읽는 정도까지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이번학기에 숫자 10까지와 알파벳 P 까지 밖에 안 가르치니 영 지루해서 수업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Elijah(부희)는 인큐베이터에 2개월 가까이 머물렀던 6삭둥이임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몸과 정신과 지능이 건강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잔병치레가 없었고 지금 2살 짜리가 6살짜리인 자기형과 덩치가 비슷합니다. 요즘은 말이 트이기 시작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들과 문장이 매일 하나 둘씩 특 특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지난 한 해는 안식년을 마치고 볼리비아로 되돌아와 앞으로 20년 사역을 준비하며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2012년은 한방병원과 한의대 설립의 법적인 기초가 준비될 것이며, 세계 선교교회와 훈련센터가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동력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기도와 협력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해에도 각 가정과 사역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2012년은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GRACE, JOSUE, ELIJAH, MOSES, & JEREMIAH

God is good, all the time!!